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스페인 신용등급 강등

□ 벨기에에 이어 스페인에 대한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확산됨.

o 국제신용평가사인 S&P는 12월14일 벨기에의 장기국채(AA+)와 단기채권(A-1) 신용등급을 현상태로 유지했지만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향후 전망을 ‘안정’에서 ‘부정적’으로 하향 조정함.

o 피치는 12월15일 스페인 저축은행연합(CECA)의 장기채무 신용등급을 AA-에서 A+로 하향조정했으며 무디스도 이날 스페인에 대해 신용등급 강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.

□ 무디스는 스페인 중앙·지방 정부, 시중은행들의 내년도 차환자금 확보에 애로가 따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국가 신용등급 강등을 고려한다고 밝힘.

o 무디스는 스페인 중앙정부가 내년에 국채발행을 통해 만기연장해야 할 물량은 1천700억유로인 것으로 추정되며 차환 발행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이자 지급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함.

- 스페인의 10년만기 국채금리는 지난달 중순 4% 중반에서 최근 5% 중반으로 치솟는 등 금리가 한 달 새 1%포인트 넘게 상승함.

o 지방정부의 내년도 상환 부채규모가 300억 유로로 추정되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방만한 운영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됨.

- S&P는 지난 2007년까지만 해도 세입의 40%에 불과했던 스페인 지방정부의 채무가 2012년에는 110%를 상회할 것이라고 경고함.

o 스페인의 은행권은 내년에 채무 상환과 부실채권 증가로 인한 자본강화 부담까지 떠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됨.

-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스페인 저축은행의 채무는 300억유로로 추정되며 은행권 전체의 차환 발행 물량은 850억유로에 달할 전망임.

- 무디스는 현재의 상황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스페인 저축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(Tier1)을 8%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50억유로의 자금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했으며, 상황이 악화되어 은행권의 부실채권이 증가한다면 자금 수요는 900억유로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함.

(Financial Times 12/15, WSJ 12/15)